

부질없는 권세 버리고 길을 떠나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 원숭이 왕, 출가를 결행하다(1)

왕 노릇하는 재미 쏠쏠하구나. 구색 갖춰 원숭이 신하를 거느리고 온갖 환락을 즐기면서 천년만년 살기를 기약하였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돌원숭이 원숭이 왕 동쪽으로 유람 나가 병든 원숭이를 만나고 서쪽으로 유람 나가 죽은 원숭이 장례제내는 것을 보고 어허? 이젠 원전에 없는 얘기네. 어디서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들었더라?

아무튼 어떤 계기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 즐거움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 우리 원숭이 왕, 비탄에 잠겼구나. 아아!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구나.

원숭이 신하 가운데 똑똑한 자 있어 한 가닥 희망을 주는구나. 염라대왕의 관할을 벗어난 세 종류의 존재가 있다고 부처와 신선과 신성(神聖)이라고 모두 이 세상에 살고 계시다고...

남들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웃어넘길지 모르지만 우리 원숭이왕이 어디 보통 원숭이인가? 비보통 원숭이인 원숭이는 크게 기뻐하고, 큰 뜻을 품었네. 반드시 그들을 만나 뵈고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찾겠노라고.

아아! 찬탄하지 않을 수 없구나! 우리 원숭이왕의 위대한 결단은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니 모든 부처의 씨앗이다. 덧없는 것에 대한 허영없는 사랑도 또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지만 그 사랑은 떠남에서 시작되는 것... 슬픈 이별에서 시작하는 것 이별의 슬픔을 단호히 잘라버리는데 떠남의 멋도 있는 것. 조강지처를 비롯한 모든 애희(愛姬)들에게 진한 작별의 키스를 하고 반드시 죽음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 돌아오겠다는 다짐으로 원숭이들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드디어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커다란 결단으로 기약 없는 여정을 출발하는 자리 엄숙하게 원숭이왕의 장도에 평안을 기원하자!

오늘은 좀 이야기가 심각해질 것 같죠? 원숭이 왕이 된 우리 돌원숭이. 원숭이 왕이라도 왕은 왕! 당연히 권세가 있고, 그에 따르는 환락도 있겠죠? <서유기> 원전에도 원숭이 왕이 즐겁게 나날을 지냈다고 나오니까 일단 환락의 나날을 보낸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 왕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네 대문을 다니면서 삶의 괴로움 실상을 본 이야기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했지만, 원숭이 왕이 덧없음, 특히 모든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 것도 분명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기 위해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나니까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쭙보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절실히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저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불가사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지만 그래도 가끔 가까운 분의 죽음이나, 바로 눈앞에서 충격적인 죽음을 보거나 하면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기도 하죠.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다. 또는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던 존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 당연히 큰 슬픔이나 충격이 오죠. 그렇게 되면 대개는 당연하게 죽음이란 무엇일까, 나도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모습이 바뀌어져 존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일까 등등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대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에 쫓기는 바쁜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러한 물음은 퇴색되고, 또 그러저럭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알 수도 없는 골치 아픈 문제를 잡고 씨름하기엔 너무도 할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고, 마음 구석에 슬며시 근본적인 물음을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어 놓는다고 해서 묻혀버리는 문제가 아니죠. 가끔 그놈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뺨히 바라보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깨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묻어 두었던 그 근본 문제가 우리를 뺨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 근본적으로 우리가 덧없음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이구, 심각해라. 그렇지만 여기서 심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이왕 심각해진 김에 우리가 마음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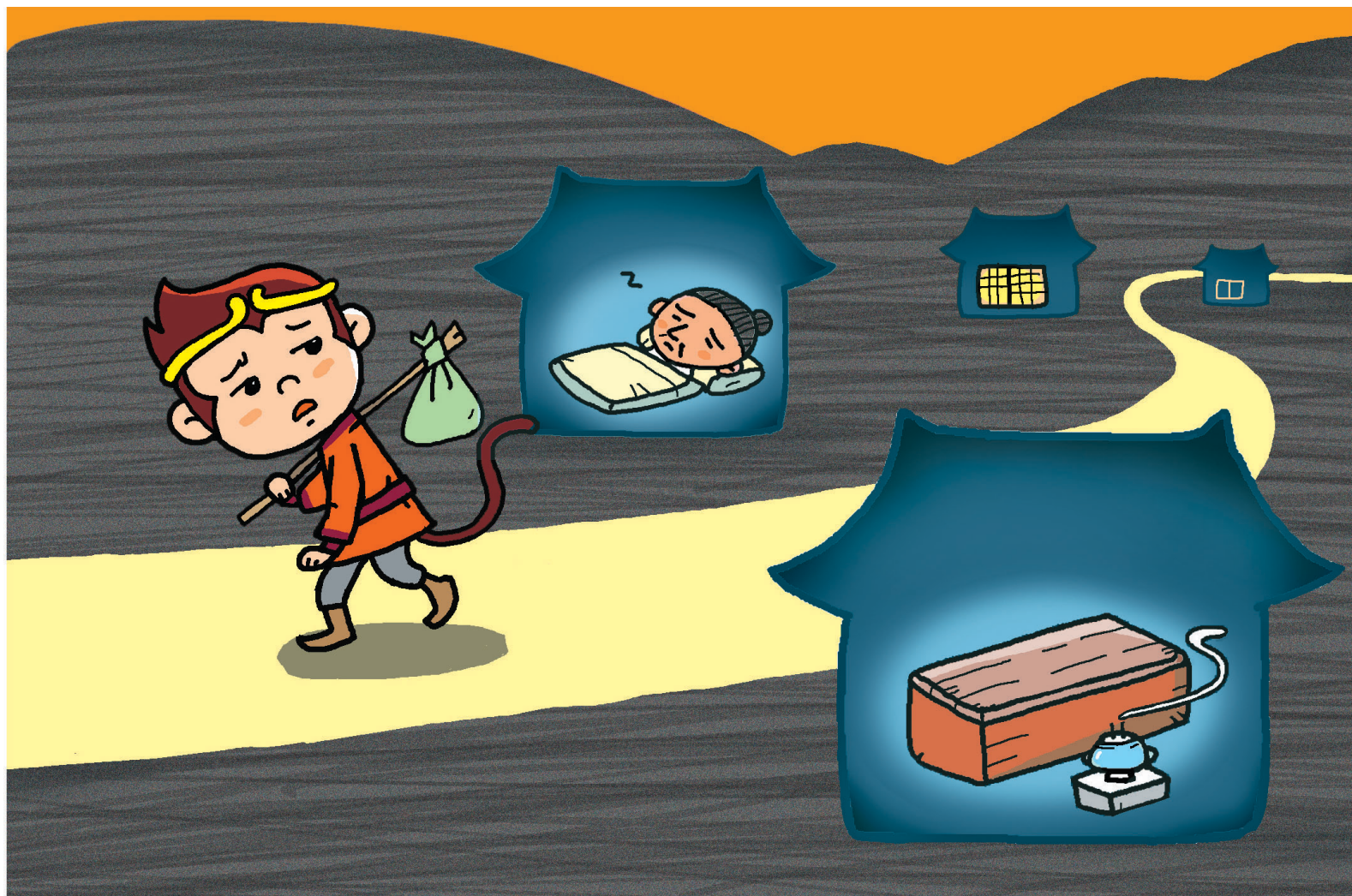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죽음의 세계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세계이다. 왜냐고? 거기 가면 아무도 돌아오지를 않더군. 그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한사람도 돌아오지를 않겠어?”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미후왕 죽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부처와 신선 만나러 길을 나서

알지 못하는 '사후 세계' 두려움 삶의 덧없는 애착에서 벗어나야

“죽음의 세계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세계이다. 왜냐고? 거기 가면 아무도 돌아오지를 않더군. 그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한사람도 돌아오지를 않겠어?”

말이 되죠?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죽어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죽음 뒤의 세계는 알 수 없죠. 오히려 그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겁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면서 겁나는 건 좀 우습지 않아요? <장자(莊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희라는 여인이 미모로 뽕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뽕혀 갈 때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슬프고 겁나 죽을 듯이 울었다는군요. 뒤에 왕의 총애를 받아 호화롭게 살게 되어서는 떠날 때 죽을 듯이 울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웃었다는가요? 마찬가지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던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자가 여행길에 동굴 속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동굴 가운데 해골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해골을 토크 치면서 “너는 어쩌다 죽었느냐? 나쁜 짓하다 형을 받아 죽었느냐”하듯 해골을 베고 잠이 들었대요.

꿈속에서 해골의 주인이 나타나서는 “너는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면서 네 기준으로 함부로 떠드는 구나”하고 꾸짖었대요. 장자가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 청을 해서 너를 다시 살게 해준다면 어떻게겠느냐”고 떠보았답니다. 해골 임자는 “내가 무엇 때문에 다시 그 시끄럽고 고통스런 삶의 세계로 돌아갔겠느냐”고 거절하였다는군요. 그래서 결국 못살아났더라, 아니 안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요?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도 겁을 내는 것은 아마도 우선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살아 있는 지금에 대한 강한 애착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죽음의 세계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어쩌면 아주 좋은 세계일 수도 있다면 죽음의 문제 같은 건 접어두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자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 고민하다 나름대로 삶을 달관하는 경지에 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민도 안해보고 그렇게 쉽게 달관이 돼요? 그렇지 않겠는 것은, 삶을 전혀 음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돼지의 삶과 다를없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단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냐구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도 있지 않냐구요? 아이고,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이렇게 고상한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 같은 분 상대하다 보면 부르던 배도 폭 꺼져요! 오늘 이야기 그만 마칩니다.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한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찬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날날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일 스티크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사찰 사용 모습

- 경사지 공방 재수 운반
- 고소 연동 설치
-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